

2022. 7월 4주 언론보도 스크랩

[소방정책] 설악산 산악사고 이틀만에 안전구조

G1방송

2022년 07월 25일
(강원)

설악산서 실족한 50대 등산객, 이틀 만에 구조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설악산에서 등산을 하다 발을 헛디뎠던 10m 아래로 떨어진 등산객이 이틀 만에 구조됐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환동해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는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설악산 토왕성폭포 인근에서 무릎 등을 크게 다친 50대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응급조치했지만,

빗길과 짙은 안개 등으로 구조가 불가능해 비박을 한 후 오늘 오전 11시쯤 헬기로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설악산서 '삐끗' 10m 굴러떨어진 등산객 이틀 만에 무사 구조

강원소방, 빗길에 옥상구조 불가 판단...비박 후 헬기로 이송



낙상 사고로 고립된 등산객 구조하는 강원소방

설악산에서 낙상 사고로 고립된 등산객이 119구조대원의 밤샘 구조로 이틀 만에 무사히 하산했다.

2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일행 5명과 등산 중이던 50대 송모 씨가 토왕성폭포 인근에서 발을 헛디뎠다. 10m가량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오후 1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한 산악구조대원들은 다친 송씨를 응급처치했으며, 일행은 구조대원 안내에 따라 먼저 하산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대원들은 들것을 활용하거나 직접 업는 방법으로 송씨를 구조하려고 했으나 지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운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조대는 송씨의 상태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서 비박을 결정, 비상식량 등으로 밤을 지새운 뒤 꼬박 하루가 지난 이 날 오전 11시께 헬기로 송씨를 구조했다.

박홍석 환동해특수대응단장은 "안전한 등산을 위해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등산로가 아닌 길에 진입을 자제해달라"며 "앞으로도 산악구조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지역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악산서 '삐끗' 10m 굴러떨어진 등산객 이틀 만에 무사 구조

송고시간 | 2022-07-25 15:00

| 강원소방, 빗길에 육상구조 불가 판단...비박 후 헬기로 이송



낙상 사고로 고립된 등산객 구조하는 강원소방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설악산에서 낙상 사고로 고립된 등반객이 119구조대원의 밤샘 구조로 이틀 만에 무사히 하산했다.

2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일행 5명과 등산 중이던 50대 송모씨가 토왕성폭포 인근에서 발을 헛디뎈 10m가량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오후 1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한 산악구조대원들은 다친 송씨를 응급처치했으며, 일행은 구조대원 안내에 따라 먼저 하산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대원들은 들것을 활용하거나 직접 업는 방법으로 송씨를 구조하려고 했으나 지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운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후 4시 45분께 안전지대로 이동한 뒤 헬기구조를 요청했으나 짙은 안개로 항공구조마저 여의치 않았다.

이에 구조대는 송씨의 상태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서 비박을 결정, 비상식량 등으로 밤을 지새운 뒤 고박 하루가 지난 이 날 오전 11시께 헬기로 송씨를 구조했다.

박홍석 환동해특수대응단장은 "안전한 등산을 위해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등산로가 아닌 길에 진입을 자제해달라"며 "앞으로도 산악구조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지역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밤샘 구조를 위해 산에서 비박하는 구조대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방정책] 설악산 산악사고 이틀만에 안전구조

TV CHOSUN 설악산 등산 중 10m 아래로 낙상한 50대 이틀만에 '구사일생'



/강원소방본부제공

설악산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고립된 등산객이 119구조대원의 노력으로 이틀 만에 구조됐다.

2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24일) 오전 10시40분쯤 일행 5명과 함께 등산 중이던 50대 송모씨가 토왕성폭포 인근에서 발을 헛디뎠다 10m가량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악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송씨를 응급처치했고, 일행들을 하산조치했다.

이후 구조대원들은 들것을 이용해 송씨를 하산시키려했지만, 지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운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원들은 송씨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뒤, 헬기구조를 요청했지만 짙은 안개로 항공구조마저 쉽지 않았다.

구조대는 송씨의 상태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서 비박을 결정, 비상식량 등으로 밤을 지새운 뒤, 고박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 11시쯤 헬기로 송씨를 구조했다.

news 1 뉴스
KOREA

설악산서 10m 아래로 떨어진 등산객 이틀 만에 안전 구조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07-25 16:23 송고



설악산서 10m 아래로 떨어진 등산객 치료하는 119구조대(강원도소방본부 제공)@뉴스1

설악산에서 낙상 사고로 고립된 50대 등산객이 119구조대원의 산에서 하룻밤을 새는 구조활동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2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등산객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쯤 설악산 토왕성 폭포 인근에서 일행 5명과 등산 중 10m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분 뒤 현장에 도착해 일행 5명부터 안전하게 하산시켰다.

구조대는 들것이나 직접 업는 방식으로 A씨를 구조하려 했으나, 지면이 젖어 구조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또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구조도 어렵게 됐다.



비박하는 119구조대(경원도소방본부제공) 뉴스1

이에 구조대는 비박을 결정, 비상식량 등으로 하룻밤을 보낸 뒤 25일 오전 11시 9분쯤 헬기로 A씨를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박흥석 환동해 특수대응단장은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비법정 등산로를 통한 등산은 자제해달라"면서 "완벽한 산악구조 출동대비태세를 갖추고 지역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2022년 07월 25일
(종합)

설악산 10m 아래 추락.고립 등산객...밤샘 구조한 119

소방, 빗길과 기상문제로 구조 난항
현장 비박한 뒤 이틀 만에 무사 구조



낙상사고로 고립된 등산객을 구조하는 모습. 강원소방본부 제공
설악산에서 낙상 사고로 고립됐던 등산객이 119 구조대원의 밤샘 노력으로 이틀 만에 구조됐다.

2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0분쯤 일행 5명과 등산 중이던 50대 송모 씨는 토왕성폭포 인근에서 발을 헛디뎠다. 10m가량 아래로 추락했다.



응급처치 모습. 강원소방본부 제공

산악구조대원들은 신고를 받고 약 2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해 다친 송씨를 응급처치했다. 나머지 일행은 구조대원 안내에 따라 먼저 하산했다.

구조대원들은 응급처치한 송씨를 들것을 활용하거나 직접 업어 산 아래로 이송하려 했지만, 땅이 비에 젖어 미끄러웠던 탓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구조대원들은 오후 4시 45분쯤 안전지대로 이동해 헬기구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짙은 안개가 깔려 여의치 않게 됐다.

구조대는 결국 송씨의 부상상태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현장 비박을 결정했다. 이들은 비상식량으로 산속에서 밤을 지새웠고,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11시쯤 헬기로 무사히 송씨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박홍석 환동해특수대응단장은 앞으로도 산악구조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지역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악산 토왕성 폭포 인근에서 50대 등산객 추락, 이틀만에 구조

입력 2022.07.25 (17:25) | 수정 2022.07.25 (17:29)

사회

□ 1 ♡ 0 <

☰ + 가 -



설악산 토왕성 폭포 인근 비법정탐방로에서 실족 사고를 당한 등산객이 이틀 만에 구조됐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어제(24일) 오전 10시 반쯤, 설악산 토왕성 폭포 인근에서 10미터 아래로 추락한 50대 등산객을 사고 발생 24시간 만인 오늘(25일) 오전 11시쯤 헬기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접수 후 약 3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실족한 등산객과 함께 밤을 지새운 뒤 이튿날 구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소방정책] 설악산 산악사고 이틀만에 안전구조

KBS 춘천

2022년 11월 29일
(강원)

설악산 '불법 산행' 중 50대 남성 추락...24시간 만에 구조



[앵커]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설악산 비경을 찾으면서, 산악 사고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50대 탐방객이 조난을 당했다 힘겹게 구조됐는데, 출입이 통제된 이른바 '비법정 탐방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발 1,000미터 안팎 설악산 국립공원 토왕성폭포 인근에 구조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구조대원에 안긴 50대 남성이 천천히 헬기 쪽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전날 오전 일행 5명과 산을 내려오던 남성이 10미터 아래 비탈로 구른 지 꼬박 24시간 만입니다.

질은 안개로 헬기 출동이 어려웠는데, 법정 탐방로가 아닌 탓에 육상 구조도 쉽지 않았습니
다.

[박근형/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 : "일반 사람이 걸어가기도 많이 힘
든 상황이어서, 기상도 비가 올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비박'을 하기로 판단을 내렸고요."]

출입이 통제된 이른바 '비법정 탐방로'는 낭떠러지가 많고 안전시설이 따로 없어, 심각한 사
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지난해 설악산 비법정 탐방로에서는 안전사고 15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건이 사망 사
고였습니다.

권금성에 올라와있습니다.

비법정 탐방로는 자연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시는 것처럼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
다.

비법정 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불법 산행'을 일삼는 탐방객
들은 이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김기창/국립공원공단 설악산사무소 행정과장 : "관리인력의 숫자도 한정돼 있고 그 수많은
샛길과 수많은 고지대라든가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국립공원 측은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단속 때문이 아
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산행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끔찍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노지영 no@kbs.co.kr

설악산 고립 등산객 이틀만에 구조



▲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설악산 토왕성폭포 인근에서 발을 헛디뎈 고립된 50대 남성을 이틀에 걸친 구조 활동 끝에 25일 오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설악산에서 낙상 사고로 고립된 50대 남성이 이틀만에 안전하게 구조됐다.

25일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쯤 설악산 토왕성폭포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가 발을 헛디뎈 굴러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산악구조대는 같은 날 오후 1시31분쯤 A씨와 접촉했으나 통증이 심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땅이 젖어 미끄럽기 때문에 육상구조가 어렵다고 판단한 구조대는 3시간 뒤 안전지대로 이동해 헬기구조를 요청했지만 안개가 짙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구조대는 현장에서 비박을 결정, 비상식량 등으로 밤을 보낸 후 항공구조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박흥석 환동해 특수대응단장은 "지역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22년 07월 25일
(사회)

여름철 '찜통더위'에 강원 온열질환자 급증... 야외활동 주의"

올해 23건 발생...소방, 얼음조끼 등 장비 보강·취약계층 급수지원



여름철 '찜통더위'에 온열질환자 급증
여름철 찜통더위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원주시 흥업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체온은 41도였다.

지난 10일에는 영월군 영월읍에서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한 80대 여성이 일시적 기억 소실과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온열질환은 고온의 환경에서 무리한 외부 활동을 하거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최근 3년(2020~2022)간 도내 온열질환 관련 119 출동 건수는 121건으로 이 중 82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고열, 경련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올해는 현재까지 2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14건이 7월에 집중됐다.

강원소방은 도내 구급차 128대에 얼음조끼 등 9가지 구급 장비를 갖춰두었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급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본부장은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열질환자에게 적극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구급대를 운영하고 도내 소방서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는 등 소방서비스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방정책] 강원소방,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의 당부

공민간연 뉴스시스
NEWSIS

강원 올여름 온열질환자 벌써 23명...지난해 62명 발생

기사내용 요약

당분간 폭염 계속 기상청 예보, 8월까지 지속적 발생 예상
열사병 각종 합병증 초래 심하면 사망
자주 휴식 취하고 수분 충분히 섭취해 온열질환 예방해야
두통·현기증 등 전조 증상 나타나면 시원한 곳 이동해 휴식
증상 심해지면 119신고해 신속히 병원으로



[춘천=뉴스시스] 김경목 기자 = 올여름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공사현장 등 야외에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원주 흥업면 공사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19구급대원들이 이 남성의 체온을 잰더니 41도 불덩이었다.

온열질환 출동 건수는 지난달 9건이었는데, 7월 들어 14건(20일 기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온열질환 출동 건수는 62건이었고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온열질환자 발생은 8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5142명이고 이 중 47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은 고온의 환경에서 무리한 외부 활동을 하거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등 증상이 나타난다.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수분을 적당량 섭취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을 나타내며 각종 합병증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체온을 낮추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8월까지 폭염 예보가 있는 만큼 날씨와 개인의 몸 상태를 고려해 야외활동을 하고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자주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하고, 두통이나 현기증 등 온열질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119로 신고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방정책] 강원소방,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의 당부

강원도민일보

2022년 07월 26일
06면 (사회)

'찜통더위' 도내 온열질환자 급증, 이달 하루 1명꼴 발생

올해 34명 집계, 7월에만 26명
도소방본부 출동 1년새 두 배
내일부터 폭염...환자 증가 우려

최근 강원도 전역에 덥고 습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강원도내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7월 들어서만 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는 27일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폭

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자 추가 발생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원주시 흥업면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체온은 약 41도에 육박했다. 지난 10일에도 영월군 영월읍 게이트볼장 대회에 참가한 80대 여성 B씨가 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일시적 기억소실과 어지럼증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한 2022년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4일 기준 도내에서만 총 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그 중 26명이 7월 들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 한 명씩 발생한 셈이다. 도소방본부가 집계한 온열

질환 출동건수는 지난 2020년 36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두 배 가량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9건에 불과했던 온열질환 출동이 7월 20일 기준 23건으로 급증했다. 온열질환자 유형별로는 열탈진 63명(52.1%), 열경련·열실신 각 21명으로(각 17.3%), 열사병 16명(13.2%) 순이다.

문제는 오는 27일 장마가 종료된 뒤 찾아오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온열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

다는 점이다. 벌써 25일 기준으로 강원영서와 북부 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도 전역의 최고 체감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온열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의 경우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폭염영향예보를 토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호·신재훈

(28.7*9)cm

강원도민일보

2022년 07월 26일
(종합)

'찜통더위' 강원도내 온열질환자 급증, 이달 하루 1명꼴 발생

올해 34명 집계, 7월에만 26명
도소방본부 출동 1년새 두 배
내일부터 폭염...환자 증가 우려



▲ 도내 북부산지·양구평지·정선평지·평창평지·홍천평지·인제평지·철원·원주·영월 등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25일 춘천 동면 서부대성로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김경호

최근 강원도 전역에 덥고 습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강원도내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7월 들어서만 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는 27일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자 추가 발생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원주시 흥업면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체온은 약 41도에 육박했다. 지난 10일에도 영월군 영월읍 게이트볼장 대회에 참가한 80대 여성 B씨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일시적 기억소실과 어지럼증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한 2022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4일 기준 도내에서만 총 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그 중 26명이 7월 들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 한 명씩 발생한 셈이다. 도소방본부가 집계한 온열질환 출동건수는 지난 2020년 36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두 배 가량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9건에 불과했던 온열질환 출동이 7월 20일 기준 23건으로 급증했다. 온열질환자 유형별로는 열탈진 63명(52.1%), 열경련·열실신 각 21명으로(각 17.3%), 열사병 16명(13.2%) 순이다.

문제는 오는 27일 장마가 종료된 뒤 찾아오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온열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벌써 25일 기준으로 강원영서와 북부 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도 전역의 최고 체감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온열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의 경우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폭염영향예보를 토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호·신재훈



뉴스속보

여름철 "찜통더위"에 강원 온열질환자 급증... "야외활동 주의"

여름철 폭염으로
강원도내에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내
온열질환 관련 119 출동 건수는 121건으로
이 가운데 8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온열질환은 고온의 환경에서
무리한 외부 활동을 하거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이 높아지면서
어지럼증과 발열, 근육경련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온열질환자에게 적극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구급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온열 질환자 급증...야외 활동 주의



최근 강원도에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강원도 내 온열질환자 이송 건수가 지난달 9건에서 이달(7월) 들어 1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증상은 체온 상승과 어지럼증, 구토, 경련 등이었습니다.

강원소방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을 할 때 자주 휴식을 취하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태희 bigwish@kbs.co.kr

강원도민일보

2022년 07월 26일
22면 (인물)



윤상기 도소방본부장 영월 실종자 수색현장 방문
윤상기강원도소방본부장은 25일 영월 김삿갓면 남한강 상류 실종자 수색현장에 방문해 119구조대원 및 유관기관관계자를 격려했다.

(7.5*5.7)cm

江原日報

2022년 07월 25일
(종합)

영월 실종 60대 나흘째 못찾아



윤상기 강원소방본부장은 지난 22일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남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수난 구조 현장을 방문했다.

영월 영월 남한강 일대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0대 남성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접어들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2시 5분께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남한강 일대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한모(60.경기)씨를 찾기 위해 차량과 보트 등의 장비와 소방 본부 긴급 기동대, 특수 구조단 등 8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중.수변 등을 집중 수색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밤과 24일 오전 등 남한강 일대에 내린 집중 호우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월소방서 관계자는 구조 현장은 상류에서 내린 비로 인해 수중 시야가 제로에 가깝고 유량도 많이 늘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트와 구조건 등을 동원해 수상 인명 검색(보트 등을 타고 강변 및 물속 와류 되는 부분을 육안 및 구조건을 태워서 하는 수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정책] 강원소방, 소방차 44대 성능평가... 교체 여부 결정

KBS 춘천

2022년 07월 26일
(강원)

강원소방, 소방차 44대 성능평가...교체 여부 결정



강원도소방본부가 이달 29일까지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소방차 44대를 대상으로 자체 성능 평가를 해, 운영 연장이나 교체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원 소방은 지난해 평가에서 검사 대상 36대 가운데 32대에 대해 사용 연장 판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예산 18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조휴연 dakgalbi@kbs.co.kr

[소방정책] 강원 계곡 바다서 수난사고 속출. 올해 벌써 32건 10명 숨져

지방 > 강원

강원도 바다·강·계곡서 잇단 물놀이 사고…1명 사망 2명 실종

강원도소방본부
NEWSIS

등록 2022.07.27 06:21:53 | 수정 2022.07.27 08:14:44

기사내용 요약

물놀이 안전사고 대부분 부주의 안전수칙 안 지켜 발생
피서객 스스로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양양=뉴스시스] 김경묵 기자 = 119구조대원들이 26일 강원 양양군 서면 미천골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A(3)군을 찾고 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스시스] 김경묵 기자 = 무더위를 피해 바다, 강,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사망·실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강원도소방본부와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양양군 서면 미천리 계곡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A(3)군이 급류에 휩쓸려 3일째 실종 상태다.

지난 22일 오후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남한강에서 낚시를 하던 B(61)씨도 도강 중 빠져 6일째 실종이다.

지난 18일 오후 강릉시 안현동 사근진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 C(23)씨와 친구 4명이 바다에 들어갔다 파도에 휩쓸렸다.

[소방정책] 강원 계곡 바다서 수난사고 속출. 올해 벌써 32건 10명 숨져

KBS NEWS

휴가철 계곡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입력 2022-07-26 19:24:01 수정 2022-07-26 19:36:33

뉴스 7



휴가철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어제저녁 6시쯤 강원도 양양군 서면 미천골 계곡에서 가족과 피서를 온 3살 이 모 군이 튜브를 타고 놀다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헬기 1대와 인력 백여 명을 투입해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이 군을 찾지 못했고, 내일 수중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제천의 한 계곡에서는 40대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계곡에서 실종된 45살 A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물놀이하다 급류에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정책] 강원 계곡 바다서 수난사고 속출. 올해 벌써 32건 10명 숨져

연합뉴스TV 뉴스 제보 뉴스피드 월드줌 프로그램 보도국 라이프 Q

지역

휴가철 잇단 물놀이 사고...양양서 3살 아이 사흘째 실종

송고시간 2022-07-27 09:21:31



휴가철 잇단 물놀이 사고...양양서 3살 아이 사흘째 실종

[소방정책] 폭염에 벌 쏘임 사고 급증... '말벌' 각별히 조심해야

KBS 춘천

2022년 07월 29일
(강원)

폭염에 벌 쏘임 사고 급증... '말벌' 각별히 조심해야



[앵커]

최근 강원도에서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벌에 쏘이는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폭염이 지속 되면서, 벌의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산물가공공장 처마 밑에 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어림잡아 축구공만 합니다.

말벌들이 쉼 없이 드나듭니다.

[김기중/춘천시 동면 : "전기검침을 하려고 했는데 '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검침을 못 하시겠다.' 먼저번에도 이제 검침하시는 분이 쏘이셔갖고."]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벌집을 떼어냅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소방본부엔 매일 100건 넘게 벌집 제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신고가 30% 늘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폭염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포식성인 말벌이 많아졌습니다.

[최문보/경북대학교 식물의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 "따뜻해지면서, 이제 먹이들이 발생을 많이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먹이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말벌들은 증가를 하고..."]

벌에 쏘이는 사고도 늘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달 20건에서 이달들어 3주 만에 180건이 넘었습니다.

[이태현/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두드러기라든지 호흡 곤란 증상이라든지 이런 전신 증상이 있을 땐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벌에 쏘이고 나서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이나 풀숲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도시나 농가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집은 주로 외벽이나 지붕 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떼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출 할 땐 가급적 밝은 색깔의 긴 옷을 입고, 몸에 자극적인 향을 뿌리는 건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소방정책] 폭염에 벌 쏘임 사고 급증... '말벌' 각별히 조심해야

KBS NEWS

분야별 ▾ 시사·다큐 ▾

뉴스9 취재K 글로벌K 영상K 스포츠 크랩 용감한라이브

#코로나19 재확산

#러, 우크라이나 침공

폭염에 벌 쏘임 사고 급증... '말벌' 각별히 조심해야

입력 2022.07.28 (19:35) | 수정 2022.07.28 (19:41)

뉴스7(춘천)

□ 0 ♡ 0 <

음 + 가 -

고화질

표준화질

자동재생 OFF

키보드 컨트롤 안내



[소방정책] [안전지킴이 119브리핑] 서핑사고 급증...예방법은?

KBS 춘천

2022년 07월 27일
(강원)

[안전지킴이 119브리핑] 서핑사고 급증...예방법은?



[앵커]

최근 동해안 해변에서 서핑 즐기는 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서핑인구 만큼 사고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는 시간, 안전지킴이 119브리핑 오늘은 서핑사고에 대해 강원도소방본부 손정원 소방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MBC

2022년 07월 28일
(강원)

강원 소방, 다중이용시설 화재 시설 위반 17건 적발

강원도소방본부가 지난 20일부터 3일간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7곳을 소방 시설 또는
방화 시설 관리 부적합으로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실내장식물에
방염 처리를 하지 않거나,
방화문 훼손, 비상구 구조 변경 등
시설 관리를 부적합하게 한 사례입니다.
강원 소방은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13건은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송미

[소방정책] 강원소방,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17건 적발

news 1 뉴스
KOREA



강원소방,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18개 업체 17건 적발

강원도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 18곳에 대한 소방위반사항 불시 단속 결과 4건의 과태료와 13건의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광역 소방특별조사 3개반 6명을 편성,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등에 대해 4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또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13건도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4건은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미실시(200만원), 피난계단 방화문 훼손(100만원), 비상구 폐쇄·변경(100만원), 소방계획서 미작성(50만원)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13건은 방화셔터 비상문 개폐불량, 스프링클러헤드 살수장애, 수신기 도통시험 단선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휴가철 대비 도내 관광객 집중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1방송

2022년 07월 29일
(강원)

강원소방, 다중이용시설 단속..불량사항 17건 적발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강원도소방본부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을 불시 단속한 결과, 불량사항 17건을 적발했습니다.

강원소방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도내 다중이용시설 18곳을 단속해 비상구 폐쇄 등 4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13건에 대해선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江原日報

2022년 07월 29일
04면 (사회)

도소방본부 다중이용시설 점검 위반사항 17건 적발·처분

강원도소방본부가 휴가철 피서 인파의 방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소방본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도내 다중이용시설 18개소를 점검, 4건을 과태료 처분했으며 13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처분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5.7*8.1)cm

safe today 재난·재해·안전·위기관리의 새로운 힘

한기범 희망나눔재단, 청소년 안전캠프 참가

8월1일부터 한국119청소년단 682명 3박4일간 참가

한기범 희망나눔재단 소속 청소년 등 40명이 태백시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에 참가했다.

참가인원은 서울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소속 청소년 30명과 지도교사 10명이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안전캠프는 강원소방본부와 태백시가 주관하며 지난 7월18일부터 3주간 태백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소방관과 함께하는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로 365세이프타운 내 종합안전체험관과 챌린지 놀이형 체험활동, 생존수영, 수상구조, CPR, 소화기실습, 로프탈출 등 다양한 안전체험으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기범 희망나눔 재단은 '2022 희망농구 안전캠프'도 태백에서 병행했다.



오는 8월1일부터는 전국 18개 시·도에서 모인 한국119청소년단(총재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682명이 입소해 3박4일간 청소년 안전캠프에 참가할 예정이다.

윤상기 강원소방본부장은 “안전캠프에 참가한 한기범 희망재단을 환영하고 청소년들이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졌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행사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캠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22년 07월 30일
(정치)

절벽서 추락한 십년지기... 절망의 순간 나타난 '슈퍼맨 소방관'

정선서 산악 라이딩 중 사고... 일행 "구급대원 헌신적 노력에 감동"



가리왕산에서 구조 활동 중인 정선 소방 구급대원들
"십년지기 친구와 산악 자전거로 라이딩하던 중 친구가 눈앞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찔하던 그 순간 119 구조대가 슈퍼맨처럼 나타났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정오께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인근에서 B씨 등 친구들과 산악 자전거로 라이딩을 즐기던 중 눈앞에서 B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를 목격했다.

A씨와 일행은 재빨리 B씨에게 달려갔으나 비가 많이 오는 탓에 절벽은 서 있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고, 내려가는 길은 미끄럼틀처럼 미끄럽고 가팔랐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한참을 헤매던 A씨는 도로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약 30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재빠른 응급조치 후 신속히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B씨는 왼쪽 팔이 탈골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상태였고 탈진 증세까지 보였으나 생명에 지장 없이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원주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대원들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A씨 일행과 다친 B씨를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다.

오렌지색 유니폼이 흠뻑 젖도록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과 헬기를 타기 전까지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주는 세심함 등에 감동한 A씨는 이 같은 사연을 최근 강원도소방본부 누리집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올렸다.

A씨는 "잘 훈련 받은 듯한 구조의 숙련도와 담대함, 이름이라도 알려달라는 말에 시크하게 돌아서는 멋짐, 제 친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가슴에 깊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환자는 안전하게 후송돼 치료를 받았고, 초기 응급조치가 잘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대원분들의 성함이라도 기억할 걸 하는 후회가 가슴에 깊숙이 남는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정선소방서 이충희 소방교는 "당시 환자가 크게 다쳤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돼 너무 다행이었다"며 "가리왕산 인근에서 라이딩 사고나 실족 등 산악사고가 잦아 이곳을 찾는 분들이 조심해서 야외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MBN 뉴스

뉴스 > 사회

산악 라이딩 중 절벽 추락 사고... 절망의 순간 나타난 '구원의 손길'



가리왕산에서 구조 활동 중인 정선 소방 구급대원들
"십년지기 친구와 산악 자전거로 라이딩하던 중 친구가 눈앞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찔하던 그 순간 119 구조대가 슈퍼맨처럼 나타났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정오께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인근에서 B씨 등 친구들과 산악 자전거로 라이딩을 즐기던 중 눈앞에서 B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를 목격했다.

A씨와 일행은 재빨리 B씨에게 달려갔으나 비가 많이 오는 탓에 절벽은 서 있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고, 내려가는 길은 미끄럼틀처럼 미끄럽고 가팔랐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한참을 헤매던 A씨는 도로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약 30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재빠른 응급조치 후 신속히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B씨는 왼쪽 팔이 탈골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상태였고 탈진 증세까지 보였으나 생명에 지장 없이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원주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대원들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A씨 일행과 다친 B씨를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다.

오렌지색 유니폼이 흠뻑 젖도록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과 헬기를 타기 전까지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주는 세심함 등에 감동한 A씨는 이 같은 사연을 최근 강원도소방본부 누리집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렸다.

A씨는 "잘 훈련 받은 듯한 구조의 숙련도와 담대함, 이름이라도 알려달라는 말에 시크하게 돌아서는 멋짐, 제 친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가슴에 깊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환자는 안전하게 후송돼 치료를 받았고, 초기 응급조치가 잘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대원분들의 성함이라도 기억할 걸 하는 후회가 가슴에 깊숙이 남는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정선소방서 이충희 소방교는 "당시 환자가 크게 다쳤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돼 너무 다행이었다"며 "가리왕산 인근에서 라이딩 사고나 실족 등 산악사고가 잦아 이곳을 찾는 분들이 조심해서 야외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방정책] 소방관과 함께 안전교육 캠프로 의미있는 여름

뉴스데스크

홈 > NEWS > 뉴스데스크

소방관과 함께 안전교육 캠프로 의미있는 여름

이준호 0 82 Print 글주소 좋아요 0



© 22-07-31 19:25:02

방송일자

2022-07-31

